34년의 환지본처, 강남 포교 새 門 서다

봉은사 5월 29일 일주문 낙성식 거행

2019년 3월 28일 합의 이후 같은해 5월 29일 이운고불 1년간 전문과정 거쳐 낙성



봉은사 일주문 낙성까지 함께 힘을 모은 사부대중이 힘차게 일주문 제막을 하고 있다. 봉은사 일주문은 1800년대 우리 전통문화의 멋을 강남 한복판에서 전하는 상징으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일주문이 34년 만에 환지본처(還之本處)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5월 29일 경내서 일주문 낙성식을 봉행했다. 봉은사 일주문은 1880년대 조성된 것으로 1986년 진여문 불사과정서 양평 사나사로 이건됐다. 이어 2011년 양주 오봉산 석굴암으로 옮겨져 석굴암 불이문으로 역할을 해왔다.

34년 만에 돌아온 옛 일주문을 보기 위해 이날 낙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 등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환지본처 본지풍광이란 취지에 공감해 아무런 조건없이 봉은사 이건을 결정한 양주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과 함께 뜻을 모은 김상훈 봉은사 신도회장 등 신도 100여 명도 참석했다.

봉은사 일주문은 건립당시 기둥, 창방, 평방, 공포 등 주요부위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네 면에 모두 지붕면이 있는 독특한 형태인 우진각 지붕이 특징이다.

봉은사 전통의 상징이 될 일주문 낙성에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그동안 과정을 돌이켜보면 땔감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일주문을 석굴암 주지 스님이 되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렵사리 이운된 일주문은 봉은사 경내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앞으로 소중한 성보로 사찰을 빛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낙성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 등의 노력으로 이같이 제자리를 찾게 됐다. 교구본사인 봉선사의 협조와 스님들의 원력, 사찰 신도들의 이해와 참여로 이뤄진 낙성이기에 그만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사찰로 봉은사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낙성에 앞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번 봉은사 일주문은 2019년 봉은사 측의 요청에 의해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와 오봉산 석굴암이 3월 28일 이운을 전격합의하며 이건이 시작됐다.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보물된다

문화재청 지정예고… "경북 모전석탑 계승 가치"

신라 말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북 영양 오층모전석탑<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북 영양에 있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2호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英陽 縣里 五層模塼石塔)' 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은 옛 사역은 확인되지 않지만 사지 주변에서 출토된 용문(龍紋) 문양의 암막새, 탑의 치석(治石, 돌을 다듬음) 형태와 문설주의 인동문, 일제강점기 당시 보고서 등을 통해 조성시기를 신라 말이나 고려 초로 추정하고 있다.

이 탑은 석재를 벽돌(塼)모양으로 다듬어 축조했다. 크게 기단 · 탑신 · 상륜부로 구성됐다. 1층 탑신은 12단으로 축조했고 남면에 감실을 두었다. 감실은 화강석으로 된 장대석으로 좌우 문설주와 상하인방을 놓아 문비를 설치했다.

좌우의 문설주는 표면에 당초문의 문양을 새겨 넣었고, 벽돌모양으로 석재를 다듬을 때 각진 위치에 자리한 모서리돌을 둥글게 처리하여 탑의 조형에 부드러움을 주고자 했다. 이 같은 조성 사례는 다른 석탑과 전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다.

탑신부는 5층이며 2층부터 급격한 체감을 두었고, 경북 지역 모전석탑의 체감비와 유사한 81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보 제187호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보다 규모는 작지만 같은 재료의 사용, 모전석탑 계열 형식의 5층탑, 남쪽에 설치한 감실, 체감비 등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에서는 4층 일부까지 남아 있는 모습이었으나, 1979년 해체 복원 과정에서 5층으로 복원했다. 200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기단 등의 주변 보수정비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화재청은 "해체보수 과정에서 기단부와 옥개부 일부가 변형된 부분은 아쉽지만, 경북 지역에 집중된 모전석탑 계열의 탑으로 희소성과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 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과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제18회 유심작품상 함민복 · 박시교 · 이승하

만해선양회 발표… 특별상 오탁번 시인


함민복 시인 박시교 시인 이승하 교수 오탁번 시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유식작품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제18회 유심작품상 수상자로 시 부문에 함민복 시인의 '악수' 를, 시조부문에 박시교 시인의 '무게考' 를, 평론 부문에 이승하 중앙대 교수의 〈한국시조문학의 미래를 위하여〉를, 특별상에 오탁번 前한국시인협회장을 각각 선정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함민복 시인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오랫동안 따뜻한 시선으로 시를 써왔고, 이번 수상작인 '악수' 도 시인 특유의 천진함과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박시교 시인의 '무게考' 에 대해서는 "수상이 늦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 시조 문단을 대표하는 뛰어난 시조 시인"이라고 상찬하며 "사물과 현상을 측은지심으로 보살피는 시를 써왔다. 이번 수상작품 '무게考' 도 삶의 무게와 처연함이 인상 깊다"고 밝혔다.

평론 수상자 이승하 교수에 대해서는 "그간 시조 전문 평론집은 거의 없었다. 시조 평론이라는 새로운 평론집을 세상에 내놓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특별상 수상자인 오탁번 前회장은 원로시인으로서 한국시인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 문단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제18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은 오는 8월 11일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열리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익산 연동리 석조좌상 대좌 정비 완료

문화재청 · 익산시 진행… 가려진 대좌 확인

백제 최대(最大) 환조 불상인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5호)의 감춰졌던 대좌를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됐던 정비사업이 마무리돼 대좌 앞 나무 불단이 강화유리로 교체돼 대좌가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정부혁신사업의 하나인 '2020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 · 관리 사업' 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 ·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좌를 가리고 있어 크기도 정확히 가늠할 수 없게 만들던 나무 불단이 교체됨에 따라 관람객들은 석불의 온전한 규모도 체감할 수 있게 됐다. 흔히 볼 수 있는 연꽃무늬가 아니라 부처님 옷자락이 흘러내린 모습의 대좌도 확인 가능해졌다.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은 대좌를 포함하여 불상이 2.68m, 광배가 받침돌을 포함하여 3.93m로 백제의 환조 불상 중 가장 크기가 크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사라지고 없던 불두(佛頭)만 새로 만들었을 뿐, 불신(佛身), 광배(光背), 대좌(臺座)는 고스란히 잘 남아 있어 백제 미술의 백미(白眉)로 인정받는 작품이다.


정비 후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의 모습. 나무 불단에 가려진 대좌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승려 모습의 불두를 교체할 계획도 갖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재 석불에 대한 실측조사를 8월까지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적인 비례와 여러 불상의 모습을 분석해 어색한 불두의 모습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